



사단법인

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산지부

참교육 소식

7월

2013년 7월 통합 251호

발행인 : 곽선희 / 주소 : 부산진구 중앙대로 918-1 (양정1동 352-2, 3층) / TEL | 051) 556-1799 / FAX | 051) 556-1790 / hakbumo1@empal.com

- 내 마음을 울린 한 마디 p2
- 기획글 | 시민이 함께 하는 부산교육 p3
- 회원탐방 | 임주연 회원을 만나다 p12
- 청소년 글 p14
- K의 교단 일기(7) | 무거운 계절 p16
- 영화소모임 | 우리가 모르는 위안부 이야기 '그리고 싶은 것'을 보고 p18
- 노귀전의 농장일기 p20
- 책 이야기 | '대담' p24
- 회원 글 | 김요아킴 시인의 야구 생을 말하다<7> p28
- 기자회견문 p29
- 시국선언문 p31
- 학부모알림란 p32
- 이달의 지역 언론 속의 교육기사 p33
- 활동사진 p36
- 지부일정 p38
- 6월 회비 보고 p39



▲ 우다소사

‘선생님, 저 아토피 때문에...’

배종만

30~40대 때 제대로 못해본 담임을 선생질(?) 30년에 접어들면서 2년을 연달아 하고 있다.
작년에는 교사가 되어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대입시를 준비하는 인문고 고3 담임도 맡아보고 올해는 3학년 자습(?) 감독 때문에 토요일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주 5일 근무를 만끽하는 1학년 담임을 한다.
고등학교 1학년 담임, 1990년 동아고 시절에 해보고 23년 만에 처음이다.
23년만큼의 그 세월을 2013년 서여고 1학년 9반 교실에서 확인을 한다.
담임 교사가 없는 교실 풍경은 요즘, 그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교사가 아니고서는 상상을 할 수도 없다.
수업 시작 종이 쳐도, 교사가 수업을 하러 교실에 들어가서 ‘그들’을 말없이 지켜봐도 ‘그들’의 시간은 오직 ‘그들’의 것일 뿐이다.
그래서 훈계를 빙자하여 짜증을 낸다. 이런 짜증이 일상으로 거듭되면 교실 밖에서는 친구인 ‘그들’하고 수업 시간에는 싸움판으로, 담임을 맡으면 ‘웬수’가 된다.
이 ‘웬수’들의 옷차림 또한 만만찮다. 그래서 등하교 할 때는 교복을 꼭 챙겨 입어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하건만 담임 선생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면 ‘그들’이 아니지!

그래서 지난 주, 종례 시간. 아마 금요일이지 싶다.
우쭐든지 불타는 금요일을 향해서 빨리 날아가야 할 낭랑 17세들 34명을 교탁에서 바라보는 순간, 교복 안 입고 허접한 체육복 차림의 ‘글마’가 눈에 꼭 들어온다.
‘빨리 가서 교복 갈아입고 왔! 교복으로 갈아입고 올 때까지 종례 안 마친다.’
교복 갈아입으려 간 ‘글마’가 한참만에 하얀 블라우스에 자주색 치마를 입고 교실로 들어서는 순간, ‘야! 임마, 니 좋아리하고 아랫도리에 그 시커먼 멍 덩어리가 뭐꼬?’

글마, ‘선생님, 저 아토피 때문에....’

아, 이럴 수가. 아토피가 저렇게 사람을 만든단 말이가?
그러니까 저 덩치 큰 ‘글마’가 아침 일찍 교문 지도하는 학생부장이 없는 틈을 타서 일찍 땡졌구나.
이 상황에서 휴머니스트가 가장 먼저 해야할 일,
‘미안하다. 선생님이 깜빡 잊고 있었네. 그리고 아토피가 어떻다는 말은 들었어도 이렇게 심한 줄은 몰랐다.
선생님이 진심으로 사과한다. 용서해주시라.
그리고 그대는 교복 입지 말고 체육복을 입고 다니거라. 학생부에 이야기해 놓을거니까.’
글마 눈에서 그만 이슬이 흐르는데 내 눈에 비치는 글마의 이슬맺힌 얼굴이 갑자기 흐려진다. 아!!!!!! 내가 바로 학교 폭력 그 자체구나.

시민이 함께 하는 부산교육

— 교육변화 주도자로서 시민 —

성 병 창 (부산교육대학교)

I. 문제의 제기

지역은 사회문화적으로 생활 체험적 교육공간이다. 그동안 교육공간으로 지역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 존재하겠지만 그 중 하나는 국가주의적 중앙집권 교육의 영향 때문이라 여겨진다. 즉, 지역 및 개인의 다양성보다는 국가와 전체의 통일성이 보다 강조되는 교육의 이념적 경향 때문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지역은 국가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면서 그 자체로서 사회문화적으로 시민들의 의식을 통제하는 기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즉, 의도적이던 비의도적이던 지역 그 자체가 지역주민(시민)들의 행동 양식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지역은 주민의 의식기제로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지역은 그 자체로서 자율성을 갖고서 학생을 포함한 지역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시키는 생활 체험적 교육공간으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의 교육변화에서 그동안 활용하여왔던 전략이나 정책은 지역의 핵심 요소(구성원)를 상당 부분 배제한 채 교육당국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지역이나 학교 등과 같은 사회체제는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을 통해 변화가 이루어진다. 의사소통은 송신자와 수신자의 역할이 상호 교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쌍방향 의사소통일 뿐 아니라 쌍방향 의사소통이어야 한다. 그런데 교육변화의 소통에서는 그동안 단방향의 과정으로 이루어져왔다. 이는 교육변화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변화주도자와 수용대상자의 역할이 좀처럼 바뀌지 않았다는 점을 말한다. 교육변화주도자들은 관 또는 기관이 행해왔고, 수용대상자들은 교사, 학생, 학부모와 같은 학교구성원 뿐 아니라 지역시민과 단체로 여겨왔다. 이것은 교육변화 과정의 모형에서 볼 때, 변화 소통의 ‘치명적 오류’이다. 변화 소통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교육변화가 어렵고, ‘가식적 변화’가 생겨나면서 혁신적 교육정책들은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진정한 교육변화를 위해 교육관련 집단들의 주도자와 수용자의 상호 교환적 역할 수행이 보다 요구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교육변화 수용대상자들이라는 집단들이 이제는 교육변화 주도자로서의 역할이 보다 부각된다고 하겠다.

부산은 그 자체로서 지역의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부산교육의 발전적 변화를 위해서는 교육공동체의 협력 위에서 상호교환적인 변화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산은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이며, 인구가 350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도시이다. 부산은 그 자체로서 문화성, 역사성, 교육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다른 지역과 다른 독특한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고, 독특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부산의 연구에서 문화성과 역사성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부분적으로 연구 성과가 있는 반면에 부산의 교육성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가 행해져 오고 있지 못하다. 즉, 부산교육의 특성과 속성이 어떠하며,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 왔

고 어떻게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은 부산의 외형적 지표와 관련된 규모 및 형태에 비추어 볼 때, 부끄러운 일이다. 과도 일반화의 수준에서 보면, 부산은 교육적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해오지 못한 도시이며, 변화가 시민을 포함한 교육공동체의 협력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정부 또는 관 주도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행해온 관 주도적 변화 추진은 대체적으로 중앙 정부의 정책지침 수행의 성과를 다른 시도와의 비교를 통해 부족한 점에 초점을 두고 행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변화 추진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때에도 부산의 교육적·발전적 변화가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는 부산의 교육적 특성을 자신 있게 내 세울 수 있는 상징이나 징표가 별로 없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부산의 교육적 특성을 함께 탐색해보고, 교육공동체가 교육변화 주체로서 부산교육변화를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 글은 어떠한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글의 결론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이 글은 공동 논의를 위한 배경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II. 교육적 맥락으로 부산 이해

교육적 맥락에서 부산을 말하기 전에 우선 부산이라는 도시에 대해 간략하게 이해해볼 필요가 있다. 현상을 이해하는 방식 중에 포괄성과 의미성을 갖게 하는 방법으로 ‘상징’을 얘기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글에서는 부산의 상징성을 먼저 살펴보고, 부산의 교육적 맥락을 함께 이해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부산의 상징성과 교육적 맥락에 대한 이해는 글 쓰는 사람의 경험적·주관적 현상 이해에 바탕을 둔다.

부산이라는 ‘경계’ 내에 속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지역의 사회문화적·역사적 ‘구속성’으로 인해 지역의 독특성을 도출해 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이와 반대로 경계 밖의 ‘외부자’의 눈에서는 경계 내의 특징적 요소들을 잘 찾아낼 수 있지만, 그러한 요소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파악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내외부자의 눈을 함께 사용하여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불행하게도 부산의 ‘교육성(교육성질)’에 대해서는 이러한 시도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이 글은 부산의 ‘교육성’에 대해 백지에서 교육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시발점이라고 여겨진다. 그래서 이 장에서는 질문 형식으로 풀어나가고자 한다.

1. 부산의 상징은 무엇인가?

부산의 상징은 부산에 대해 포괄적이면서 특징적 성질을 나타낸다. 상징은 유·무형적인 실체를 의미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부산의 상징을 파악하는 것은 부산의 문화적·역사적 인식을 반영하여 부산의 특징적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단순한 방식으로 부산이라는 도시를 떠올릴 때, 우선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을 파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최근의 한 호주 TV 프로그램에서 부산을 취재한 적이 있다. 호주에서 거주하다가 부산에 온 호주인들을 대상으로 질문한 결과, 부산의 특징적 도시의 모습으로 롯데 야구단으로 파악하고 취재를 해 간적이 있었다. 실제 부산의 상징이 다른 외부인에게 롯데 야구단으로 비쳐졌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부산시민들의 롯데 야구단에의 유별난 애정과 열정 그리고 응원 문화 등이 작용했을 것이라 여겨진다. 즉, 롯데 야구단

에 대한 부산 시민의 관심을 볼 때, 호주와 같은 지역에서는 쉽게 찾기 어려운 모습이었을 것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부산시민들의 롯데 야구단에 대한 애정은 분명 남달라 보이며, 야구장에서의 관람행동 또한 유별난 면이 있다. 이는 분명 부산 시민의 의식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의 외형적 모습보다는 내면적으로 왜 그러한 행위가 자연스럽게 부산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부산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여러 가지 이유와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몇 가지 가정적 분석을 해보자면, ‘억압에 대한 폭발’, ‘교묘한 지역경쟁 유발’, ‘승리와 전설’ 등이 교묘하게 결합되어 나타난 현상이라 여겨진다. 부산은 1960년대 이후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 까지 군사정권의 통제로 언어적 표현의 제한을 심각하게 겪고 있는 상황이었다. 억압에 대한 분출 통로가 대부분 막혀있었고, 이를 표출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마음껏 소리 질러 볼 수 있는 곳이 야구장이었다. 그리고 정권 유지의 차원에서 의도적이던 비의도적이던 스포츠를 통해 지역 간 경쟁 유발을 도모하면서 지역에 대한 동질감 형성과 더불어 타 지역에 대한 배타적 감정이 유발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걸출한 야구선수가 등장하면서 승리와 우승의 보상이 함께 어울리면서 부산시민에게는 버릴 수 없는 ‘애인’으로서 롯데 야구단이 자리 잡은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러한 시기를 겪은 부산 시민들에 의해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계속 변화·발전되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지역사회 속에서의 시민들의 행동은 지역 속의 신화와 가치를 만들고 그것에 빠져들면서 지역의 전통을 형성하게 된다. 또는 그것은 어느 순간부터 의식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행동하게 되는 관례화 또는 관습화된 행동을 낳게 된다. 국가의 통치 수단으로 야구를 보급했다고 하지만, 부산 시민은 부산 지역의 상황 속에 이를 재적용하고, 나름의 신화와 가치를 만들고, 이를 통해 나름의 전통을 만든 것이 롯데 야구단에 대한 부산시민의 의식과 행동 패턴이라 여겨진다.

지역의 특징은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에 의해 형성되어진다고 한다면, 내부자의 입장에서 부산의 상징은 무엇이라 여겨지는가?

2. 부산 교육의 상징은 무엇인가?

부산 교육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다양한 상징적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부산 교육에 대한 인식은 교육적 맥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상당 부분 좌우된다. 여기에서 교육적 맥락이란 교육현상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영향 변인 또는 조건들을 말한다. 그러한 점에서 교육적 맥락의 변인은 무수히 많을 수 있으며, 주요 변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존재한다. 이러한 점으로 인해 서로 다른 상징적 표현들이 제시되게 된다. 즉, 어떤 이념과 가치에 근거하느냐에 따라 동일 영향 변인에 대해서 그 이해와 해석이 달라지며, 이의 상징적 표현 또한 달라진다.

본 장에서는 교육적 맥락을 교육구성원 변인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교육구성원들이 종국적으로 교육변화를 유발하고, 그들의 인식과 행위로 인해 어떤 체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적 맥락 속에서 각 교육구성원들에 대한 해석을 통해 전체적으로 부산교육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 부산의 교원은 어떻게 상징화할 수 있는가?

부산의 교원에 대해 어떠한 상징적 말로 표현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부산의 교원들에 대해 총체

적으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길 바란다는 기대를 파악할 수 있다.

부산 교원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교육적 맥락을 크게 교직입문 과정에서의 맥락, 교직수행과정에서의 맥락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교직입문 과정에서의 맥락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폐쇄’에서 ‘개방’, ‘넓음’에서 ‘좁음’, ‘정신적 준비’에서 ‘기술적 준비’ 등의 변천 과정을 겪어 왔다고 하겠다. ‘폐쇄’에서 ‘개방’이란 1980년 초까지는 교직입문이 국립대학교의 사범대학과 교육대학교의 목적형 교원양성체제로 이들에게 우선 임용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오다가 사범대학의 우선 발령에 대한 독점권이 위헌 판결을 받게 되면서 중등 교직입문의 형태가 개방형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폐쇄적 교직입문 제도 방식 하에서는 주로 대학성적에 의해 부산에 우선 발령하고, 그 다음으로 경남 등의 지역에 발령을 나게 하였다.

‘넓음’에서 ‘좁음’의 의미는 교직 입문이 비교적 쉬웠던 상황에서 어렵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직업세계에서 비교적 교직에 대한 인기(?)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오면서 전반적 직업안정 가치를 우선시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해 교직에의 인기 상승과 더불어 입문이 어려워지고 있다.

‘정신적 준비’에서 ‘기술적 준비’는 교직입문 과정에서 교사로서 가져야 할 의식이나 가치관 등의 준비 중심에서 점차적으로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술 등의 준비 중심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정치적 격동기와 비교적 쉬운 입문 상황(무시험입문)은 교직입문자들에게 민주화의 가치와 교육자로서의 가치를 여윌틈(?) 반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반면에 최근에는 어려운 입문 상황과 교원임용 경쟁시험으로 인해 지식적·기술적 준비에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한 사람들만이 교직입문에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여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을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느슨한 또는 부족한 준비’에서 ‘철저한 또는 충분한 준비’로 변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교직수행 과정의 맥락에서 변화는 각 시도 교육청 소속의 20년 정도 경력을 가진 교사 및 교감들을 대상으로 직접 개방형 면담·질문한 결과를 여기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인천 |

- 수업의 일상적 지도 → 개선적 지도 (좋은 수업 또는 수업개선을 위한 노력)
- 적극적 생활지도 → 소극적 지도

| 울산 |

- 소신과 신념이 있고 적극적인 교사 → 소극적이고 직업인으로서의 교사(어려운 업무 기피)
- 동료교사와 지역사회와 협력적인 교사 → 이기적, 자기중심적 교사
- 후배 사랑, 선배 존경 모습 → 경쟁적 관계 (승진, 근평, 성과급 등)
- 정채된 모습 → 진취적 모습(연수, 학위취득, 승진 등)

| 충북 |

- 천직으로서의 직장 인식 → 생계를 위한 직장 인식
- 인간을 가르치는 데에 주안점 → 고객을 관리하는 데에 주안점
- 나름의 교육철학으로 소신있는 행동 → 해야만 하는 최소한의 일만 하기도 버겁게 행동

| 전북 |

- 소통과 집단을 우선시 하는 교직 → 세대 간 불통과 개인 우선
- 가르치는 데에 보람을 찾았던 모습 → 피곤하고 무기력하며 생활인으로서 만족을 찾는 모습

| 강원 |

- 집단주의 성향 → 개인주의적 성향(선배교사에 대한 배려와 예절이 부족하고 자기주장을 거리낌 없이 표현)
- 획일적인 강의식 수업과 수업개선 노력이 결여 → 다양한 수업 방식과 수업방법 개선에의 노력

| 세종 |

- 학습자료 및 학급지도 충실 → 업무과다로 학습자료 및 학급지도 소홀
- 소신있는 학생 지도 → 소극적 학생지도(학부모의 학교불신으로 인한 담임교사간의 의견충돌이 빈번함)

| 제주 |

- 능동적, 적극적 모습 → 소극적 수동적 모습
- 집단주의 모습 → 개인주의(이기적) 모습
- 자질의 부족 → 개인적 자질 우수(지적인 면)

| 전남 |

- 천직으로 교직 → 교직에의 정체감 상실

| 대구 |

- 솔선수범, 봉사정신, 희생정신 → 개인주의, 보상지향적 행동
- 열성적인 부모의 역할 → 무기력한 방관자 역할

전반적으로 볼 때,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변화의 모습은 교사들이 교직수행에서 이전에는 적극적, 동료관계적, 희생적이었던 반면에 최근에는 소극적이고, 개인지향적이고, 보상지향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긍정적인 변화의 모습은 교사들이 변화에 정체되고 획일적 수업운영 방식이었다면 자기개발적이고, 다양한 수업운영 방식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부산의 교사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나. 부산의 학생은 어떻게 상징화할 수 있는가?

부산의 학생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어왔는가를 통해 부산 학생을 상징화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시도 교육청 소속 20년 이상의 교직경력을 갖춘 교원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과 면담을 통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 인천 |

- 반듯하고 모범생 추구 → 무 개념 성향
- 학습 중심의 행동 → 개성 중심의 행동

| 울산 |

- 교사를 스승으로 존경 모습 → 교사를 직장인으로 대하는 모습
- 협동과 단결 모습 → 이기적 그리고 자기중심적 모습
- 적극적 모습 → 피동적 모습
- 성별에 적합한 행동을 보이는 모습 → 여성화 행동
- 인성지향적 행동 → 학력지향적 행동

| 충북 |

- 배우는 학생 → 다니는 학생
- 우리를 우선 → 자신을 우선
- 가르침을 기다리는 대상 → 교사를 존재하게 하는 고객

| 전북 |

- 함께하는 행동 →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행동
- 수업에의 적극적 행동 → 수업에의 무기력한 행동
- 안내심을 갖추 → 참을성이 없음

| 강원 |

- 아날로그의 학생 → 디지털의 학생(급격한 변화, 개성과 자율성 그리고 창의성이 중시되고, 집단적이고 전체주의적 생활이 점차 거부되고 있음)
- 정서적 안정감 → 정서적 불안감
- 학습 중시 풍토 → 학습 의욕 상실

| 세종 |

- 공동체 중심 → 개인적 이기적 생활태도
- 교사에 대한 존경심과 예절 중시 → 존경심과 예절 실종

| 제주 |

- 자기 통제 가능 → 자기 통제 어려움
- 건강한 신체 → 허약한 신체
- 인성적 요소 중시 → 인성적 요소 부족(예의, 협동심 등)

| 전남 |

- 교사 순종형 → 교사 타협 순종형 → 통제 불능형

| 대구 |

- 사회성과 공동체적 행동 → 개인중심으로 귀차니즘(모든게 귀찮다는 입장)
- 독립적이면서 주어진 역할을 수용하는 자율적 인간 → 근거 확인을 통한 거부적 인간
- 타인에 대한 인식과 사회 규범 중시 → 타인 무시와 자기중심성 중시

전반적으로 볼 때, 교사들의 학생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전의 학생들은 비교적 공동체적 사회규범을 준수하고 학교 학습을 중시하였으며 교사에게 순응적인 행동을 보였던 반면 최근에는 개인 지향적이고 자기 통제가 힘들 정도로 무기력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산의 학생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상징화할 수 있는가?

다. 부산의 학교는 어떻게 상징화할 수 있는가?

부산의 학교 상징은 부산의 학교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본질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이다. 부산의 학교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타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보는 것은 부산 학교의 본질 파악에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시도 교육청 소속 20년 이상의 교직경력을 갖춘 교원을 대상으로 개방형 질문과 면담을 통한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 인천 |

- 관례와 관습 중심 → 법규와 매뉴얼 중심
- 권위적 조직 → 개방적 조직
- 집단 이익 중심 → 개인주의 성향

| 울산 |

- 확인적, 단순 업무 수행 → 다양하고 복잡한 업무 수행(지식의 전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무 수행)
- 교육관련 자료의 아날로그화 → 디지털과 스마트화
- 수직적 조직(지시, 명령) → 수평적 조직(협력, 컨설팅)

| 충북 |

- 교육 주도 기관 → 서비스 기관
- 과정 중심 → 성과 중심
- 인정과 존경 → 부인과 거부

| 전북 |

- 공동체적 조직 풍토 → 개별적 조직 풍토

- 여유로운 학교 → 피곤하고 지쳐있는 학교

| 강원 |

- 권위적, 통제적 경영 풍토 → 자율적이면서 외부눈치의 경영 풍토
- 폐쇄적 조직 → 개방적 조직(갈등의 수반)

| 세종 |

- 인간적 비형식적 교육 중시 → 업적, 실적, 성과에 연연한 비인간적 교육과 형식적 교육 중시
- 보편적 교육 중시 → 특정 학생 위주의 교육 중시
- 자기주도적 학습 중시 → 입시중심 학습 중시

| 제주 |

- 시설환경의 후진성 → 현대화 및 선진화
- 관료적 운영 → 외연적으로는 개방적이지만 내연적으로 더욱 관료적 운영
- 여유로운 학교 → 행정업무 폭주의 학교

| 전남 |

- 다양성과 창의성 결여 → 조직의 다양화, 교육과정의 다양화
- 과도한 학생 수용 → 여유로운 학생 수용

| 대구 |

- 공부 가르치고 인간다운 인간(사회성)을 길러주는 곳 → 아이를 낳는 것 빼고 모든 것을 다해주어야 하는 곳
- 교사가 존경받고, 학교관리자의 권위가 인정되는 곳 → 상급기관에 쥐어 박히고(특하면, 감사, 징계), 학교 관리자의 권위와 자율성이 사라지고, 고객의 권리는 있는데 학교와 교사의 권위가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곳
- 가르치고 교재 연구하는 것이 교사의 주 임무이고, 행정 처리는 부수적인 업무였던 곳 → 수업은 틈이 나는 데로 들어간다는 틈새교육을 하는 곳
- 실력 있고 전설적인 학생이 존재하였던 곳 → 실력도 떨어지고 인간적인 면도 사라지고 수동적인 학습자를 양산하는 곳

이상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전의 학교 모습은 타인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생활이 중시되고, 비교적 업무 부담이 적은 편안한 학교의 모습이었으며, 명령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수직적 그리고 관료적 조직이었던 데 반해 최근에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고 수업 이외의 업무 폭주로 인해 교육충실 수준이 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교육관계자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수평적 조직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부산의 학교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이를 어떻게 상징화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공동으로 협의를 통해 도출하고자 한다.

3. 부산의 교육역량은 어느 정도인가?

교육변화는 궁극적으로 교육받는 자의 변화를 지향한다. 교육받는 자는 교육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학생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서 부산의 교육역량은 부산의 교육관련 집단들의 교육 역량의 합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좁은 범위에서 볼 때, 부산의 교육역량은 부산 학생들의 교육역량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역량을 나타내는 지표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본질적 맥락과 시대적 맥락에서 교육역량의 지표를 전세계적으로 적용가능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OECD(2004)에서 제시한 적이 있다. 이를 참조하여 부산 학생의 교육역량을 파악할 수 있다. OECD(2004)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지식과 기능을 활용하는 능력

- 언어(상징, 텍스트) 사용 능력
- 지식과 정보사용 능력
- 기술(컴퓨터 포함) 사용 능력

② 이질적 집단 간에 교류하는 능력

- 타인과 관계 맺는 능력
- 협업 능력
- 갈등 해결 능력

③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능력

- 전체적 맥락 속에서 행동하는 능력
- 생애(구체적 과업 포함)를 설계하고 실천하는 능력
- 개인(집단과 단체 포함)의 권리, 이익, 필요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

OCED(1994)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의 지표에 비추어 볼 때, 부산학생들의 교육역량은 어떠하며, 부산시민들의 교육역량은 어떠한지 함께 논의해보고자 한다.

- 핵심역량의 지표에 비추어 볼 때, 부산의 교육역량은 어떠한가?

이 글은 시민의제컨퍼런스 정책학교에서 교육팀에서 준비한 발표문의 일부이다. 다음 달에 나누어 읽는다. 시민이 직접 만들어가는 정책의제(교육, 복지 등 9개 분야)를 다양한 형식을 통해 모아내어 11월 의제사전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다.



● ●

임주연 회원을 만나다



이번 달 회원 탐방의 주인공은 이규남 참학 부지부장님의 부인 임주연 회원이다.

장맛비가 올듯 말듯 하늘이 흐렸던 6월 하순 어느 날, 임주연 회원을 만나기 위해 강서구에 위치한 그녀의 집을 방문했다.

오가는 사람들이 많아 가게를 겸하고 있는 집을 잠시도 비울 수 없는 처지인데도, 그녀는 우리 일행을 위해 강서구청까지 차를 몰고 마중을 나와 주었고 직접 점심을 차려 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 점심을 먹고 좌중들에게 커피를 한 잔 씩 쥐어주고 나서야 비로소 한숨을 돌리는 그녀와 마주 앉을 수 있었다.

Q : 참학에 가입하신 계기를 듣고 싶어요.

A : 2005년 즈음 저희 아들이 중학교에 다닐 때 남편이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언을 듣고자 먼저 참학에 가입하고 활동을 했는데, 그런 남편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저도 가입하게 되었어요.

Q : 참학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다면...

A : 참학 행사가 있으면 부지부장님이 일을 맡아 오니...같이 사는 제가 모른 척 할 수도 없고(웃음)...음식 기부도 하고 행사 참여도 하고.

합천 달빛트래킹을 함께한 것은 정말 좋은 추억이었어요.

행사 때마다 참학 회원분들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는 것을 보고 배운 것도 많고요.

Q : 그동안 참학 활동을 하면서 느끼신 점이 있다면?

A :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는 여자들이 자신이 지향하는 일에 부딪히는 것 자체가 어려울 때가 많은데, 참학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가도 받지 않고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매년 단체를 꾸려나가는 것을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요.

그런데도 오랜 시간 활동하신 참학 고문님들이 “참학 활동으로 힘들었다.”가 아니라 “참학은 개인적으로 힘든 시기를 잘 넘기게 해준 고마운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소신을 위해 일하는 여성들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참학은 새로운 세상에 눈뜨게 되는 곳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Q : 늦깎이 공부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A : 올해 초에 방통고를 졸업했어요.

방통고에 진학하는 사람들은 나이에 관계없이 자기계발을 꿈꾸는 사람들이라 배움에 굉장히 열성적이에요.

저희 반이 3년 전 29명으로 출발했는데 2명을 제외하고는 이번에 전원 졸업했어요. 방송고 특성 상 한 달에 두 번 밖에 보지 못하는데도 5개 반 중에 팀웍이 최고였죠.

저도 매번 학교 가는 날이 기다려졌고 덕분에 3년 개근을 했어요. 직업과 나이는 다양해도 꿈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항상 즐거운 에너지가 흘렀어요.

3학년 때 갔던 졸업 여행도 좋은 추억이 되었고...졸업식에 참학 회원분들이 와 축하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든든했어요.

Q : 공부를 해서 꼭 이루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나요?

A : 제가 공부를 하려했던 이유는 배움과 제 생활을 접목하고 싶어서였어요.

저희 부부가 아이들을 좋아해서 그런지...계속 공부를 해 자격증을 따서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시설을 운영해 보고 싶어요.

Q : 참학에 바라시는 점을 말씀해 주세요.

A : 제가 바라는 참학은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아이를 바라봐 주고, 학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멘토가 될 수 있는 곳이에요.

물론 지금도 참학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더 잘했음 하는 거죠.

젊은 회원들이 많이 늘어야 한다는 생각도 늘 해요. 참학 사업의 범위를 미취학 어린이들까지 넓혀서 자연스럽게 외연을 확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참학이 비영리로 보육, 탁아 사업을 해서 그 공간에 젊은 엄마들이 오간다면 결국 참학 회원 배가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도 임주연 회원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계속 이어졌다.

고기를 사러 온 이웃, 그냥 지나가다 들러 본 지인, 심지어 여호와의 증인을 전도하러 온 교인들까지...

인터뷰 중간 중간 말이 끊어지기를 여러 번, 짜증이 날 법도 한데 그녀는 매번 그들에게 점심을 먹었냐는 확인을 하고 차를 권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다 문득 인터뷰 전 사담을 나눌 때, 남편인 참학 부지부장님이 남에게 너무 베푸는 것을 좋아한다며 불평을 하던 그녀가 떠올라 슬그머니 웃음이 나왔다.

‘부창부수(夫唱婦隨)’라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말이다.(^^)

임주연 회원님, 바쁜 와중에도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행을 배웅하는 얼굴에 깃든 넉넉하고 편안한 미소에 돌아오는 길 내내 가슴이 따듯했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우리들의 소중한 은혜에게

이 수 예 (부일외고 2)

안녕 은혜야, 정말 오랜만에 본다, 그치? 그때 언니랑 만났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2주가 흘러버렸구나. 지금 언니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어. 공부한다고 정말 죽겠다, 은혜야. 왜 좀 더 어릴 때 실컷 놀지 않았는지 후회한다. 가끔 공부하는 게 너무 벅차서 초등학교때부터 착실히 쌓아두고, 그걸 밑바탕삼아 앞으로 나가는 언니 친구들 보고 부럽기는 하지만, 은혜야, 네가 노는 거 보고 역시 어릴 때는, 공부보단 더 많이 경험하는 게 더 어울릴 나이라고 생각한단다.

은혜야, 은혜는 언니 처음 봤을 때 생각나니? 난 니 처음 봤을 때, 내 친구가 옆에서 ‘수예야, 니가 말은 애 정말 귀엽다’고 했었어. 은혜라는 이름은 제대로 듣지 못해 바로 외우지는 못했지만 네 얼굴은 바로 기억했었지. 아직 애기살이 빠지지 않고 젖니가 난 니 모습이 정말 귀여웠단다. 그 때 은혜는 내 이름을 듣고 내가 누군지 찾다가 날 보고 배시시 웃고 의자 뒤로 숨어버렸었어. 그때 난 네가 부끄럼 잘 타고 말 없는 아이인줄 알았어. 인형을 주고 계속 말을 걸었는데도 말이 없길래 걱정 많이 했었어. 사실, 언니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낯 잘 가리거든. 서로 말 없이 어색하게 있다가 헤어지면 어쩐나 싶기도 했고. 다행이도 네가 불임성 있고 소신있는 애라 쉽게 친해질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한단다.

언니가 체험활동하는 동안 가장 놀랐던 건 네 체력이란다. 내가 딱 니만했을때 어른들이 내 뛰어다니는 거 뒷바라지한 적 있었는데 나는 멀쩡한데 어른들이 헉헉 하는 거야. 어린 시절 철없을 때라 마냥 아, 내가 달리길 잘하나 보다, 했었지. 하지만 어른에 가까워진 지금의 내가 어릴 적 천방지축 날뛰었을때의 나와 닮은 너와 함께 뛰었을 때, 이걸 달리 기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체력의 문제구나 그랬단다.

여기까지 쓰고 보니까 아직 네게 어려운 말이 많을 것 같구나. 하지만 네가, 내가 무슨 말을 하고싶은 건지 이해해 준다면 그것도 큰 성과겠지.

마지막으로 은혜야, 진짜 인생의 선배로써 말하는데, 초등학교 2학년때는 집안에만 있지 말고, 문 밖으로 나가 배워보렴. 그 나이 땐 정말 많은 걸 보러 다니고 많은 걸 경험하고 배우는데 부끄러워 할 게 없는 나이야. 어른들도 언니야들 보고 ‘너희들은 모른다는 게 부끄러울 나이가 아니다’, 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들이 볼 땐 너희 나이 때야말로 많이 겪어보고 실수하고 배우는 게 부끄러울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해. 언니는 은혜가 부러울 때가 많아. 나도 아홉 살로 돌아가면 정말 많은 걸 해보고 싶어. 고등학생인 지금은 공부하는데도 힘들어서 캠핑 갈 힘이 없단다.

다시 읽어보니까 정말 어려운 말이 많네ㅠ 정말 미안해ㅠㅠ 언니가 고지식한 말밖에 늘어놓지 못해서ㅠㅠㅠㅠ 글도 너무 길어서 읽다가 지루해버릴지도 모르겠다, 이만 줄일게.

다시 보는 날까지, 안녕!

from 수예

우사소사에서 나의 첫 돌봄 봉사활동을 다녀오다

— 소사들과 함께한 하루 —

김영인 (부일외고2)

나의 꿈은 초등학교 선생님이다. 그래서 스펙을 위해 돌봄 봉사활동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6월 8일 소사들과 함께 한 하루가 나의 생각을 바꿨다. 너무 순수하고 착한 아이들을 보고 나를 반성하고 이 아이들 같은 친구들을 보살피고 가르치고 싶어졌다. 내가 생각을 바꾸게 된 소사와 함께한 하루, 그 지난 일을 적겠다.

돌봄 봉사활동을 기대하다 전날 밤 잠을 못 자서 지각을 했다. 너무 죄송하고 나의 소사를 보기 미안했지만 하루동안 불 사이니까 사이 좋게 지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소사인 은수가 남자애다 우다 2명이 함께 한 소사를 돌보게 되었다. 게다가 멀리 떨어져 앉아서 목적지까지 갈 동안 못 친해졌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엔 날 많이 불편해하는 거 같았다. 다른 우다인 재정이에게 “난 많이 못 친해져서 네가 많이 챙겨줘. 난 너를 많이 도와줄게”라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플라네티리움과 특수상영관에서 은수를 많이 챙겨주고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니까 은수가 영인이 누나라고 말해주고 웃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많이 친해진 거 같다.

영상을 보고 난 후 전시관에서 관람을 하다가 휴대폰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재정이에게 은수를 부탁하고 계속 혼자 찾으러 다녔다. 또 어떤 사람이 들고 가서 버린 휴대폰을 경비실에 같이 찾으러 가주고 걱정해주는 등 은수는 날 이해해주고 괜찮다고 해주었다. 이 일이 은수와 우다소사분들께 가장 죄송하고 고마운 일이었다. 내가 일정을 더 늘리고 시간을 잘 맞추지 못했는데도 불평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했다.

마지막 현장학습지는 진해 해양공원이었다. 그곳에서 은수와 가장 친해진 거 같다. 건물 안에서 관람을 한 뒤 재정이와 은수가 밖을 한 바퀴 돌고 아이들이 신발을 벗고 함께 놀 수 있는 마루에서 우다소사 모두가 함께 둘러 앉아 이야기하고 놀았다. 장유성 선생님이 소사들에게 우다를 자랑하

고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나는 은수가 한 50점도 안 줄 거 같았다. 내가 너무 못 해준 거 같아서다. 근데 94점이 라니 놀라웠다. 무지 기뻐다. 그 후엔 아이들의 넘치는 에너지를 건디며 같이 뛰어 놀았다. 소사들이 어찌나 빠른지 잡으러가다가 내가 먼저 지쳐서 꼬꾸라질 뻔했다. 이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 길, 친해진 소사들을 무릎위에 앉히고 옆에 끼고 헤어질 시간으로 달렸다. 우다소사 버스 아저씨가 동래역에 내릴 사람은 먼저 내리라고 했다. 나는 동래역이 우리 집과 더 가까웠지만 은수와 소사들과 더 같이 있고 싶어서 두실역까지 같이 가고 마지막엔 소사들이 살고 있는 곳까지 갔다. 은수는 버스에서 내가 힘들까봐 “바쁘면 먼저가”라고 해주고 의젓하게 “쓰레기는 내가 치울게 누나는 그냥 가도 돼”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은수를 돌봐준 게 아니라 은수가 나를 돌봐준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 소사, 은수, 은수의 그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은 나의 생각을 바꾸고 나의 마음을 더 깊고 따뜻하게 해주었다.

소사들과 함께한 하루 짧지만 깊었다. 내가 한 봉사활동은 많이 없었지만 지금까지 한 봉사활동 중에 가장 뜻 깊었고 또 하고 싶은 활동이다. 나의 생각은 바꾼 하루에 대해서 이만 글을 마치겠다.



무거운 계절

권 용 욱 (회원, 교사)

성하의 시작이 한 달 지나다. 일기 예보는 예년과 달리 더위가 극성이라 호들갑이다. 장마 사이 띄엄띄엄 무른 하늘도 제 할 일에 무거운 돌을 진 듯 힘겨워한다. 지난 주말에 드러난 들은 못발을 듯바늘로 기운 채 흥건히 땀에 젖은 농부의 적삼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태양에 단 몸을 식힐 밤조차 짧아져 어둑하면 앵앵거리는 모기보다 더 초조해지는 시절. 꿩이잠을 설치고 나면 피로의 끝에서 늘 모자라는 밤의 길이.

한 달에 한 번 K를 만나며 적은 일기장 속 문자들도 제법 수북하여 배불뚝이다. 머릿속에 든 것보다 아랫배가 더 솟으면 뭐든 게을러지는 법, K를 빗댄 달거리 글쓰기 공작도 뒤로 미루는 나태의 습성이 되살아난다. 그를 만난 지 삼일이 지나서야 일기장을 펼친다. K가 문득 글쓰기는 잘 되고 있냐고 묻고, 쓴 글을 자기도 볼 수 있냐고 힐끔거리고, 자기는 달마다 숙번 내리 듯 시원한데 나는 어떠냐고 다그칠 땐, 그저 짧은 웃음을 안주로 소주만 찔끔거렸다. 뭐든 솔직하고 쉽게 적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디지털의 문자로 아날로그 마음과 일상을 표현한다는 것은 당초 바닷물을 조각조각 꿰매는 일처럼 불가능하다.

이번엔 K가 수다스러웠다. 평소 술잔에 걸고 있던 입을 잠시도 닫지 않고 이 쪽 저 쪽 대중없는 말을 내어 쏘았다. 어느 종로에서 빵을 맞은 것이 분명했다. 두어 시간 입담에 지친 그가 불쑥 일어서는 바람에 밤늦게 다시 시작한 장맛비 전에 귀가할 수 있었다. 미처 다 읽지 못했던 《생물 다양성은 우리의 생명》의

제목을 책꽂이에서 훑어 찾아본다. '다양성'이라는 어휘에 덩성덩성 그의 말들이 걸려들어 일기장을 찾아 더듬고 있다.

올봄에 거제 망치해수욕장을 간 적이 있네. 거기 해변에 돌들이 모두 둥글둥글하여 꼭 밀링으로 깎은 듯 하더군. 저 돌들이 파도에 구르고 굴러 둥글게 되는 세월이 얼마일까 생각하며 해변을 한참 걸었지. 그런데 말이야, 마냥 둥근 돌들만 계속 이어지니 나중엔 둥근 돌들이 뻗질거리는 놈처럼 미워지더라니까. 둥근 돌들 사이 어찌다 모나게 깨어진 돌이 눈에 띄어 신기하여 주워보았지. 자세히 보니 그게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이었지만, 그 쓸모없는 것도 둥근 것들 속에 있으니 낯설고 귀해 보이더라 이거야..... 공사중인 채석장에 이놈의 몽돌이 만약 나타난다면 그건 아마 해외 토픽감이 되겠지만, 망치 해변에서는 별로야. 아무튼 한 가지만 있는 곳은 금방 싫증나고 귀한 줄을 모르게 되는 게 맞는 말인가 싶었네, 안 그런가?

수업 중에 말일세, 내가 영어 단어 하나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그 반 학생 모두가 모르는 수가 있을 거잖아, 그럴 경우 학생들은 모두 스스로 안심하거나 자위하는 것 같다 말이야, 왜? 다들 모르니까, 그 단어 뜻이 원래 어려워 고등학생이 알 수 없는 것이겠거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몰라도 괜찮다는 거지. 그런데 말야, 어느 반에 가면 아는 학생들이 있거든, 그러면 그 반 아이들은 귀가 좀 솔깃하다는 거지, 아하, 아하 친구도 있구나, 내가 모르고 있구나, 뭐 그런 표정.



역시 실력 차이가 좀 나는 반이 재미있지. 암, 그래야 아는 녀석이 모르는 녀석에게 동기도 주고, 모르는 녀석은 저하고 다른 녀석들도 세상에 있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인정하게 되는 거지.

지금 같은 상황이면 말이야, 아는 녀석들끼리 모아 수업하는 학교와, 모르는 녀석들끼리 모아 수업하는 학교가 서로 다르다보니, 아는 녀석들은 모르는 녀석들의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모르는 녀석들은 아는 녀석들의 수준을 감히 짐작도 못하는, 다시 말해 교집합이 없는 여집단끼리의 학교가 되었던 말이야, 서로 불행한 거지..... 장차 아무렴 아는 녀석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야 할 것 아닌가, 그럼 그런 녀석들이 모르는 녀석들의 관심사나 즐거움의 조건을 상상할 수 있겠냐 말이야. 과거 같으면 한 교실에 섞여 있다 보니, 나중에 서로 동창이 되어 만나면, 녀석들끼리 그래도 친구가 되어 어렵고 힘든 일을 서로 교류할 기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야, 아는 녀석들은 아는 녀석들끼리만 동창이고, 모르는 녀석들은 그들끼리만 평생 동창일 뿐이야. 콩과 팥만큼 서로 떨어진 거지. 그들만의 코스와 그들만의 동창으로 서로 교차되지 않는 이랑을 만들 것이며, 그 고랑 사이는 절대 메워지지 않을 것이네.

일백만 명이 죽은 아일랜드 감자기근은 온 밭에 감자만 심은 탓이 제일 크다네. 재배나 관리, 그리고 수확 등 모든 면에서 편의성과 경제성만을 따지고 오로지 감자만 심었던 게지. 당장의 호구지책에만 열중했을거야, 그 후에 닥칠 재앙엔 백치였었고, 그런 십구세기 실수를 우리는 지금 학교에서 저지르고 있으니 원. 우리 청소년들이 어느 날 감자의 마름병 같은 불치의 병으로 모두 고사된다면 어쩌겠는가? 그 병으로 마침내 삶을 잃어야 할 사람들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인 줄도 모르고 말이야.

전장에서 나폴레옹도 세 앞 클로버들 사이 네 앞 클로버가 신기하여 총알까지 피해가며 옆드려 꺾으려했다는 전설이 있잖는가. 학이 없는 나라여서 닭만 구구거리고 모여 있다면 학의 기품을 드러낼 기회는 영원히 없을 것이네..... 좋다 싫다는 주관에 따른 판단이고, 삶터에 한 가지 종만 있으면 싱거울 거야. 단조로운 순간에 문득 눈길을 끄는 방향전환의 희열이 있을 수 있지. 변화와 차이가 없는 균일의 삶은 오로지 멍멍할 거야..... 학생들이 기계로 복제한 규격품 같은 사이보그는 절대 아닌 데 말이야..... 차이가 없으니 차이에 대한 이해심도 없어졌다네. 어쩌다 조금 차이가 나는 녀석이 있으면 우루루 둘러 모여 그놈을 쫓아대고 말지. 자신과 달라서 오히려 낯설고 귀한 것이라 보듬지 않고, 목숨 살리는 호기심을 보이기 전에 그 한 잎마저 따내고 똑 같은 세 앞 클로버가 되기를 강제하고 말지. 조금 다르다는 것은 암세포처럼 이물질인 거야. 동종을 수호하기 위한 배척은 폭력까지 정당화하지. 교실조차 정세판처럼 되어서야 되겠나.

K의 말처럼, 흰 옷밖에 입지 못했던 단색의 설움이 이십일 세기 우리의 교실에까지 연연히 이어져 온 것일까. 단일 민족이라는 배타의 원심력이 아직 우리 사회를 회전시키고 있는 것일까. 신혼부부가 똑 같은 커피를 입은 모습을 보고 내가 아는 외국인이 고개를 저으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민족이라고 했다. 다른 것에 대한 거부가 단군의 지침이었을까. 차이를 인정해볼 기회조차 박탈당한 교실이라고 K는 열을 올렸다. 서로 달라서, 다른 것끼리 모이면 또 다른 것으로 변할 수 있다는 변증의 진화를 잃어버린 교실이 슬프다고 했다. 자기 속의 타산지석을 영원히 밝혀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더욱 많아짐이 아쉽다고 그는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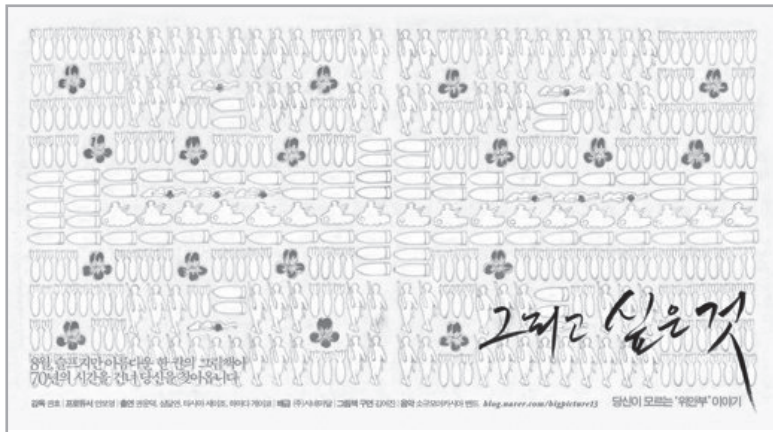
신분의 반상(班常)사회가 물러난 자리에, 지식의 반상사회가 들어왔고 있는 것일까. 창밖을 본다. 예나 지금이나 장마의 하늘은 늘 무겁다.



우리가 모르는 위안부 이야기 '그리고 싶은 것'을 보고

글 : 백미영

공간초록 초록 영화제 / 연출: 권 효 / 출연: 권 윤덕



오랜만에 공간초록에서 초록영화제를 봤다. 여름이라 마당있는 집이 시원하고 어둑어둑한 화면 빛을 받는 공간이 운치있어 보였다. 그냥 오랜만에 공간초록에서 영화 함 볼까해서 골랐는데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다. 13년째 부산경남 지역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왔던 난 영화가 끝나고 부끄럽지만 사람들에게 긴 설명을 하기로 했다. 영화는 한,중,일 동화작가들이 위안부 할머니 얘기를 공동작업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 작가로 참여하게 된 여류 화가의 이야기다.

우선 핵심은 이작가도 과거 성폭행의 경험을 가진 작가다. 그런 속에서 대구 심달연 할머니와 다른 할머니들에게 같은 경험을 가진 여성으로서, 동료, 연대정신으로 접근을 한다. 민족, 역사의 개념보다는 여성인권, 개인의 삶의 문제로 접근한 것이다. 이것은 이 영화의 큰 줄거리이고 핵심이기도 하다.

우리는 매번 일본을 비판하면서 배상과 사과를 요구하지만 그에 비해 할머니들의 개인의 인권, 삶, 성노예의 상처를 얼마나 알려고 했던가? 이 여류작가와 영화는 여기에 눈길을 준다.

그리고 긴 시간의 작업.

작가의 고민과 예술혼이 오롯이 느껴져 온다. 한 권의 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12번의 제본을 만들어 내고 고통스러

운 일들도 겪어내고 자신의 투혼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러나, 그림은 끝까지 일본을 설득하지 못했다. 화필이 거칠고 아이들의 눈에 안 맞을 수도 있고 일본 우익들 때문에 출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한국 한국에서는 출판이 되었지만 일본은 계속 분위기가 바뀌며 보류 중이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누군가의 질문대로 거꾸로 우리나라는 그림 만약 베트남 가서 저지른 만행을 책으로 내려고 할 때 우리사회는 그걸 받을 수 있을 만큼 관용적인가?

우리도 일본 만큼이나 보수사회로 흐르고 있지 않은가? 일본이 더 심각해 보이지만,,
그 다음은 이 작가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그리기 위해 오랫동안 할머니들을 만나고 생사고락을 함께 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서야 어떤 작품을 만들 수 있겠냐만 계속 할머니를 방문하고,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마지막으로 이 작가가 할머니들에 대한 반 전문가가 되었다는 점이다. 사인회를 하고 일본학교, 조선학교, 우리나라 학교들을 돌아다니며 강연을 하고 ..

할머니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대변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알아야 할 역사를 알려주는 것이다.

할머니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

일본의 사죄와 배상도 죽기 전 소원이겠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소원은 후세들이 다시는 당신들과 같은 역사를 겪지 않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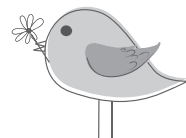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고 평화로워야 한다.

지금도 세상에는 전쟁과 분쟁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다.

언제 세상은 평화로워질까?

2013년 현재 위안부 할머니들은 58분이 남으셨다.

건강하게 오래사시기를 바라면서 한 맺힌 거 없이 상처없이 환하게 가시기를 빈다.



백미영씨는 위안부 할머니들 돌보는 일에 참 예쁜 마음으로 참여한다.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할머니들 한 번이라도 더 뵈기 위해 주말이면 떠나기도 한다. 미영씨에게는 남다른 영화였으리라..
(백미영, 김차름, 김혜례, 곽선희 함께 봤습니다)



노귀전의 농정일기

풍성한 6월의 농장일기~^^

3월 땅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4.5월 각종 모종을 심고 물을 주고 김을 매었더니...

드디어 6월 풍성한 수확이 시작된다.

일요일마다 가면 상추, 감자, 오이, 가지, 고추, 부추, 아욱 등등 담아오는 게 점점 늘어난다. 고랑마다 피어오른 생명은 서툰 농부에게 큰 크나큰 축복이요 행복이다. 밭에서 갓 따서 먹는 방울토마토랑 오이의 맛은 싱싱한 생명 그 자체로 건강한 기쁨을 선사한다.

관심과 사랑을 준만큼 아니 그 이상의 보상으로 다가오는 풍성함에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새삼 와닿는다. 엷드려 풀을 뽑으면서 잡생각이 달아남에 기도 도량이 딴 곳에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까지 드는 것이 매주 오지도 못하면서 혼자 농사 다 짓는 거 같다.

7월 중순에는 참학 회원의 날을 농장에서 나는 모든 것들과 체험을 함께 한다니 자랑하고픈 마음에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모쪼록 우리 참학 회원님들이 많이 오셔서 수확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여러 채소들의 효능에 대해서는 모두 잘 알고 있겠지만, 완전 초보 농군(?)인 나는 모든 게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다. 이참에 모르는 것도 배운다는 의미로 우리 농장에서 자라고 있는 채소들의 효능에 대해 찾아 적어보기로 한다.

★ 감자의 효능

감자에는 비타민 B와 C가 풍부하여 혈관 벽을 강하게 해주고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억제 하여 동맥 경화를 막아 주고 당뇨병 예방, 감기 등의 면역성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며 여성의 피부 미용에도 좋다. 마그네슘을 공급하는 감자와 칼슘을 공급하는 우유를 곁들여 먹으면 영양상 서로 보완이 되어 좋다. 또한 알카리성 및 저칼로리 식품으로 당뇨병 환자를 위한 식품이다. 비타민이 풍부하여 자연식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좋다. 신선한 감자에는 소량이지만 하나 아트로핀이 들어있어 경련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하는데 예로부터 위궤양, 십이지장 따위의 통증과 출혈을 멎게 하는데 감자를 사용하여 왔다고 한다. 또한 위산의 분비를 억제하는 작용을 하므로 위궤양 치료의 보조요법으로 사용한다.

감자의 성분은 혈액, 근육, 내장 등 우리 몸의 곳곳에 고루 분포되어 있고, 뇌세포를 자극하고 산소호흡을 왕성하게 하며, 포도당의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 등을 한다. 감자는 우수한 탄수화물을 보유한 식품으로 소화가 잘되며, 조금 먹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다이어트식으로는 적격이다.

감자는 햇빛을 쬐면 파랗게 변한다. 실온 보관시에는 2-3일 내에 소비할 감자라면 빛이 통하지 않는 종이 봉투에 담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하면 된다. 냉장 보관시에는 종이 봉투에 감자를 담고 다시 비닐 봉지에 담아 야채 칸에 넣어두면 2주일 정도 신선하게 보관이 가능하다.



★ 오이의 효능

오이는 강한 알칼리성 식품으로 산성화된 몸을 중화 시키고, 이뇨 작용이 있어 부기를 빼준다고 하네요~ 또한 열을 내리고 해독 효과가 뛰어나 화상의 명약으로 꼽히며, 가려움증이나 땀띠 등을 가라앉혀준데요~ 오이의 비타민C는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감기를 예방하며, 피로와 갈증을 풀어준다고 하네요. <동의보감>에도 오이는 이뇨 효과가 있고, 장과 위를 이롭게 하며, 소갈을 그치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오이의 효능들은 흔히 조선 오이라고 하는 백오이에 훨씬 많다고 하네요.

♣ 오이는 몸을 맑게 한다.

오이는 칼륨이 많이 들어 있다고 해요. 칼륨은 몸 속에 쌓인 나트륨과 함께 노폐물을 밖으로 내 보내는 역할을 해준답니다. 특히, 나트륨은 소금의 성분으로 짜게 먹는 사람에게는 오이가 더 없이 좋은 식품이 되겠죠?

♣ 오이는 부기를 빼준다.

칼륨이 몸 속의 노폐물을 배설하면서 수분이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부종을 낮게 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몸이 부었을 때 오이 냉국을 달여 먹으면 부기가 빠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 오이는 열을 내리고 갈증을 푼다.

오이는 성질이 차고 해독 작용이 있어 몸의 열을 내리는 효과가 뛰어나답니다. 발열과 오한, 화상, 타박상 등을 치료한다. 또한 95% 정도가 수분이어서 갈증을 푸는 효과가 있답니다.

♣ 오이는 술독을 푼다.

오이는 이뇨 작용의 효과가 있습니다. 술 마신 뒤 오이를 먹으면 소변과 함께 알콜 성분이 빠져나가 숙취가 풀린다고 하네요.

♣ 오이는 암을 예방한다.

오이의 꼭지 부분에는 쿠쿠르비타신 A, B, C, D가 있다. 그 중 쿠쿠르비타신 C는 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네요. 쿠쿠르비타신B는 간염에 효과가 있다고도 하네요.

♣ 주의하세요!!

오이는 비타민 C를 파괴하는 효소인 아스코르비나제가 들어 있기 때문에 다른 채소와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노귀전의 농심일기

★ 가지의 효능

가지에는 93%의 수분과 단백질 탄수화물 칼슘 인 비타민A, C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가지 색소에는 지방질을 잘 흡수하고 혈관 안의 노폐물을 용해 배설시키는 성질이 있어서 피를 맑게 한다. 또 가지에는 스코폴레틴과 스코파론이라는 경련억제 성질을 갖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가지는 식품중에서 가장 강력한 암 억제효과를 발휘하여 특히 가열한 뒤에는 80%이상의 억제율을 나타낸다. 또한 빈혈과 하열 증상을 개선하고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양을 저하시키는 작용이 있고 특히 고지방식품과 함께 먹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의 상승을 억제한다. 색이 진한 채소, 과일 등에 영양이 많다고 해서 이른바 '컬러푸드'가 뜨고 있다.

식물이 자라는 동안 자신을 공격하는 바이러스, 곰팡이 등과 싸우기 위해 만들어내는 피토케미컬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피토케미컬은 노화의 주범으로 알려진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 역할을 한다. 활성산소가 혈관을 손상시키면 동맥경화가, 피부를 손상시키면 주름이 생긴다. 따라서 성인병과 각종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가지와 포도, 머루, 블루베리, 복분자, 자색고구마, 자색양파, 자색양배추 등의 보라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색소는 항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 일본 식품종합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 가지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 아플라톡신 외에도 탄 음식에서 나오는 발암물질인 PHA를 억제하는 효과가 항암채소로 꼽히는 브로콜리나 시금치의 2배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혈액 속에 지나치게 많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고혈압에도 좋다고 한다. 눈의 피로를 덜어주고 시력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는 사람들도 보라색 식품을 많이 먹는 게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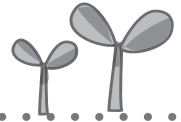
한방에서는 가지하면 소화기 계통에 모두 좋다고 하는데 특히 신장에 좋고,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성질이 차서 열이 많은 사람에게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통증이나 부종을 없애는 데도 좋다.

가지를 요리할 때는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면 불포화 지방산과 비타민 E를 많이 섭취할 수 있어서 좋다. 삶아서 무치는 가지나물이나 가지볶음 외에도 양상추나 오이, 파프리카 등의 채소에 잘게 썬 가지를 넣어 샐러드를 만들어도 좋고 쇠고기, 버섯, 양파 등을 다져 넣은 가지선은 보기에 먹음직스러울 뿐만 아니라 영양이 고르게 들어가서 권할 만하다.

시원한 것이 좋다면 찐 가지를 가늘게 찢어 적당한 길이로 잘라 가지냉국을 만들어 먹으면 좋다. 삶거나 볶아도 안토시아닌은 파괴되지 않는다.

가지를 고를 때는 보라색이 진하면서 윤기나 나는 것, 탄력이 있는 것이 좋다.

색이 연하면서 크기가 너무 큰 것은 센 것일 가능성이 크다. 센 것은 가지를 너무 늦게 딴 것으로 단단하고 맛이 떨어진다. 민간요법으로는 생가지를 잘라서 얼굴에 자주 문지르면 주근깨 등의 잡티가 없어진다고 한다. 가벼운 화상, 타박상에도 냉장고에 넣어 차게 한 가지를 세로로 길게 잘라 붙여준다. 또 마른 가지 잎을 갈아서 따뜻한 술, 소금물로 마시면 빈혈에 좋다. 구내염에는 가지 꼭지를 진하게 달인 물로 양치를 하기도 한다.



▲ 감자를 수확했어요



▲ 오이밭에는 오이가 주렁주렁



▲ 오이밭을 지키는 둘쇠



▲ 고구마밭 김매는 함정화 부부



▲ 고추가 셀 수 없을 만큼..



▲ 여기는 토마토 밭



▲ 밑가지 얹겠지만 이렇게 큰 수박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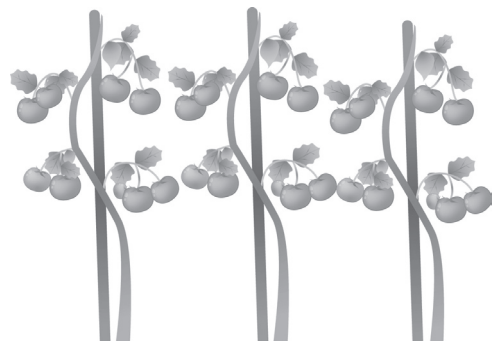
▲ 열무와 아욱밭입니다



▲ 농장집을 장식하는 꽃들..



▲ 우리를 반겨주는 이들..





‘대담’ | 최재천 도정일 | 휴머니스트 |

신광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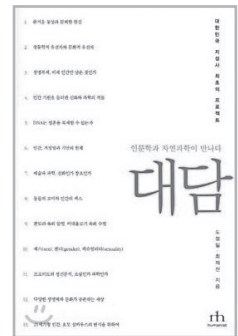
1. 통섭

인문학자 도정일과 생물학자 최재천이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경계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제껏 시도되지 않은 참신한 기획이다. 사실 이렇게 자연 과학과 인문학이 나뉘어졌던 것은 서양의 근대 문물이 들어오면서부터였다. 조선시대의 유림의 사유는 우주를 논하더라도 수행을 강조하여 학문과 실천이 나뉘어져있지 않았고, 자연에 대한 탐구와 인문학적 탐구가 분리되지 않았다. 그런데 왜 근대에 들어서 관심의 폭이 이토록 쪼그라 들었을까?

학문이 돈벌이와 직결되는 세상이 되다보니 자연 탐구도 돈 되는 쪽으로만 활발하고 돈 안되는 인문학은 내팽개쳐 지고 있다. 자기가 전공한 분야는 행여 남들이 뺏어 갈까봐 철밥통처럼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 들지 않는다. 탐진치가 끝이 없다. 인간에게 과연 희망을 기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끊어진 전통과 맥을 이어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요 근간에 ‘

통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학문간에 높아진 경계를 허물고 통합적이고 거시적 안목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그러려면 인문학은 상상력으로 자본의 벽을 넘어 자연과학과 소통하고 인간의 가치와 생명의 존엄성을 되찾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연과학은 예술을 음미하고 역사 인식을 갖추며 인식의 기본 토대를 인문학과 연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답 찾기가 아니라 질문 잘 하기 (새로운 질문 만들어 내고 상식 의심해 보기)

이 책의 미덕은 우리가 여태껏 제기해보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 생활 속에 있지만 제기해보지 않았던 의문들을 환기시켜 준다는 점이다. 소제목 중에서 몇 개를 열거해보면

- * 생명복제, 이제 인간만 남은 것인가?
- * DNA는 영혼을 복제할 수 있는가?
- * 인간, 거짓말과 기만의 천재
- * 동물의 교미와 인간의 섹스
- *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소설인가 과학인가?
- * 다양한 생명체와 문화가 공존하는 세상

이들 각각의 주제들은 사실 책 한권의 분량으로도 다 해명할 수 없는 물음들이다. 게다가 그 물음들에 대한 접근을 자연과학과 인문학 양쪽으로 풀어 나간다. 예를 들어 6장 인간, 거짓말과 기만의 천재라는 장에서, “도 선생님 신화는 구라죠?” 하면 “그렇다면 과학도 구라입니다” 응답하는데, (아아니? 과학이 구라라고?) 처음에는 낯선 이야기를 한참 설명을 듣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고 그러다보면 자연히 새로운 의문도 생긴다.

최재천: 과학은 사물을 관찰하고 이치를 파악하는 정신활동이니까 인문학과 자연과학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학문이라는 거죠.

도정일: 네, 그래요. 저는 진화 생물학자들이 신화나 경전 읽기 같은 데도 관심을 가지고 과학자가 읽는 신화. 생물학자가 읽는 <구약> 뭐 이런 책 좀 써주었으면 싶어요.

최재천: 동감입니다. 과학도 인문학이 없으면 할 수 없습니다. 과학도 결국 언어를 사용하는 학문 활동이고 기본적으로 분석과 종합으로 이루어지는데, 종합을 하려면 결국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혹은 동양의 과학자들이 세계 과학계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걸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산은 바로 언어로 대표되는 인문학적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왜 언어와 인문학적 소양이 세계과학의 헤게모니와 연관을 가진다고 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어진 설명을 들으면 (이 책은 읽는 게 아니라 듣는 책이다.) 아하 의문이 풀린다. 과학은 어느 분야보다도 거의 완벽하게 영어가 장악한 분야라 한다. 인문학에는 아직도 불어와 독일어가 명맥을 유지하는데 과학에서는 존재조차 없다는 것이다. 영어로 유창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종합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래서 아무리 탁월한 실험을 많이 한 동양의 과학자라해도 궁극에 가서 과학계를 평정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그런 일들이 과학계에서 일어나고 있었다고? 전혀 몰랐었다. 어쩌다가 그 지경에 이르렀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그건 나의 새로운 숙제가 된다.) 그래서 최재천선생은 학생들에게 어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라고 애걸을 한다.

도정일 선생은 인문학적 소양을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정리한다.. 이어서 인문학적 삶의 방법 가운데 첫 번째가 '가슴을 여는 사회'이고 그건 자기 존재의 울타리를 걷어 치울 줄 알아야한다고, 그래야 타자가 들어오고 자기가 자유로울 수 있단다.

이렇게 서로 공감할 때도 있지만 서로 대립하며 각을 세울 때도 있다.

최재천: 진화의 전체 흐름을 보면 단순한 생물들이 우리처럼 복잡하고 다양하게 진화해 왔으니 당연히 어떤 형태의 진보 개념을 상상할 수도 있겠죠. 이 문제를 한 마디로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 다윈의 진화론에서는 소진화와 대진화를 나눠서 이야기하는데요, 소진화는 유전자 수준에서 벌어지는 변화고, 대진화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커다란 현상들을 말합니다. 소진화를 이야기할 땐 사실 별 문제가 없어요. 소진화에는 '진보' 개념이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전자가 뇌를 가진, 생각하는 존재도 아니고, "유전자들아, 우리 좀 더 잘해 보자!" 이럴 리도 없다는 거죠. 유전자들 간의 갈등과 경쟁 사이에서 돌연변이도 생기고 모두가 우연투성인데 거기서 무슨 '진보적인' 방향을 잡겠어요. 그러나 이런 소진화의 단계를 거쳐서 대진화로 넘어가면 문제가 결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걸 생물학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자 동시에 상당한 매력이기도 합니다. 물리학이나 화학은 기본적으로 환원주의적 학문이지 않아요. 쪼개고 쪼개서 부분을 보고 그 부분들로 전체를 끼워 맞추는 학문이지요. 그런데 생물학은 그렇지 않아요. 분자에서 단백질로, 단백질에서 조직으로, 조직에서 생명체로 하나의 단계를 밟아 올라갈 때마다, 환원주의적인 것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요소들이 개입하고 구성 부분의 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도정일: 복잡성의 영역에 들어오면 '진보'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결코 말할 수 없다, 좋은 애깁니다. 생명체의 진화 못지않게 복잡한 것이 인간의 역사인데, 그 역사라는 것에 진보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진보'라는 말이 나오면 사람들은 곧장 '마르크시즘'을 연상하죠.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진보란 것이 인간 사상계에 등장한 역사는 겨우 200년 안팎입니다. 진보 사상을 띄워 올린 것은 근대 과학과 계몽 철학이죠. 과학, 이성, 합리적 기획을 합치면 인간 사회는 '진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근대 이데올로기죠. 거기에 불행하게도 정치 제국주의가 결합하였습니다. 진보라는 것이 어떤 주어진 방향이나 목표를 향한 역사의 필연적 진행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역사에 진보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선생님의 표현대로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역사가 진보했는지 어떤지는 그 역사라는 것이 끝나는 지점에서만 알 수 있겠죠. 저는 그때까지 살 생각이 없어요. (하하하)

이 부분을 편집해서 2007년 부산대 논술문제의 제시문으로 제출된 적이 있다. 위 제시문에서 진보 개념에 대해 두 사람은 각각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를 묻는 문제인데 진화라는 개념과 진보라는 개념을 구별하고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졌는가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제시문에는 나타나지 않는 배경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다. 교양으로 읽어도 좋지만 중고생들 논술 대비 배경 지식 쌓기에도 이 책만큼 훌륭한 텍스트는 드물 것이다.

3. 흥미로운 화두와 함께 인식의 지평 넓히기

소제목뿐만 아니라 책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화두가 곳곳에 출몰한다. 예를 들어

- 과학의 뿌리는 신화이다.
- 지식 국경 등 모든 경계는 인간의 정치적 권력이 자본과 결합하면서 생성해 낸다.
- 항우울제를 먹으면 행복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에 대하여
 - 1) 인간의 최대목적은 행복이라 할 수 있는가? (어떠한 게 행복인가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개진한다.)
 - 2) 행복 이데올로기의 위험성(나는 행복해야 해 라는 강박관념도 문제지만 고통없는 삶이 행복이라고 또는 무한욕구 물질소유가 행복이라고 믿는 경우도 문제다.) 고통을 통해서만 발견되는 진실과 행복이 있다.(78p)

구체적으로 페이지를 표시하면

- 86p 화이트헤드曰 “과학 기술 종교 예술은 살의 토대이다.”
- 89p 해방 전까지만 해도 인문학과 자연과학 사이에 경계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경계가 생기게 되었는가?
- 90p 한국은 진화론이 침투하기가 어렵다 왜 그러한가?
- 91p 한국 대학의 문제점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정치경제에 끼친 영향)
- 92p 한 우물을 파서 그 속에 갇힌다. 소위 ‘철밥통’
- 94p 프로메테우스 콤플렉스 (선각자가 스스로 걸머지는 윤리적 책임의식)
- 115p 신화가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데도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 120p 과학은 답을 추구하고 인문학은 질문을 추구한다.
- 126p 인간의 모든 행위 동기 가치 목표 등이 생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최재천씨는 결국 인문학의 토대 역시 생물학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주장)
- 130p 생물학적 토대 위에 있으면서 생물학적 차원으로 환원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 (도정일씨의 반론이 이어진다.)
- 143p 보노보 원숭이들의 집단 섹스 파티 (그런데 다른 원숭이에 비해 비폭력적이다. 왜?)
- 155p 19세기 생물학(진화론포함)을 과학이 아닌 ‘백인 신화’로 보는 이유는?

191p 한국 박사학위의 허점 (홀로서기가 안된다.)

195p 영문학이나 국문학등의 강의는 인문학 교육의 일부로 진행되어야 한다. 우주와 인간에 대한 도전적 관점 또는 질문 제기나 비전을 품고 있어야한다. 무엇보다 인문학적 교양과 식견 가치관을 기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257p 거의 모든 인간사회가 근친상간을 금지한 것은 다양성 유지 전략이었다.

258p 인간은 악하고 결함이 많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든다.

267p ‘혼’이라는 것도 정신과 마찬가지로 문화적 구성물이다.

269p 영혼이라는 것도 시간의 한계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인간욕망의 산물이다.

289p 피카소曰 “예술은 진실을 일깨워주는 거짓말이다.”

347p 지금 미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고 시장이다

352p 지금은 예술의 쓸모는 떠나갔고 기술의 쓸모를 찾아 가고 있다.

361p 예술과 과학에 자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465p 프로이드의 무의식 이론을 세 줄로 요약하면

1) 내게는 내가 모르는 내가 있다.

2)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다

3) 나의 주인은 나의 무의식이다.

469p 원근법 해체가 근대 권력의 거세와 관련되어 있다.

473p 미신과 신화의 차이점

484p 인간의 의식이나 혼은 모두 뇌에서 나오는 것인가?

485p 공룡의 뇌는 두 개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는 엉덩이쯤에.....

552p 세계화의 그늘에서 말라죽는 대표적인 문화의 꽃이 바로 언어이다.

여기까지는 내가 개인적으로 흥미있게 공부한 부분이다. 읽는 사람에 따라서 제각기 궁금하거나 재미를 느끼는 부분들이 다를 것이다. 이 책의 또 다른 미덕은 처음부터 차례대로 정독을 요구하지 않고 소제목 또는 맨 뒤에 붙어 있는 쟁점 찾아보기를 보고 부분적으로 읽어도 된다는 점. 순서 없이 자유롭게 읽다보면 백과사전이나 인터넷 검색으로도 제기하거나 풀지 못하는 다양한 질문들이 생생히 살아 숨쉬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가) 개인주의와 개인 이기주의는 어떻게 다른가 500~501

괴델의 불완전성 공리 121

(나,다) 남자는 과연 바람을 피울 수 밖에 없는 동물인가? 447

(아) 예술과 종교의 관계는 무엇인가? 331~341

이런 식으로 300개 가까운 물음들을 가나다순으로 친절하게 배열해 물음별로 찾아볼 수 있게끔 배려해 놓았다. 교육은 가르치는 행위가 아니라 우주 만물에 대해 스스로 흥미를 갖도록 유도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참교육이 가능한 지점은 오직, 스스로 즐거워 공부하게끔 환경을 조성하는 데서 출발한다. 학생들이 공부를 끄찍하게 여겨 자살하는 세상..... 그 자살율 세계 1위 이게 바로 생지옥 아닌가?

여름 방학을 맞아 자녀와 함께 읽을 수 있는 좋은 책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번트(bunt), 그리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 사회지도층 희생정신 아쉬워 -

김재홍 (회원, 부산 경원고 교사 · 현재 사회인 야구선수로 활동)



〈이대호 선수의 번트 장면〉

‘희생이 있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야구처럼’. 이는 한 자동차 기업에서 만든 TV 광고의 마지막 문구다. 프로야구 원년,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투수의 연륜이 묻어난 내레이션을 함께 한때 일본 프로야구 선수로까지 뛴 대타자가 번트를 대며 선행 주자를 진루시키고 퇴장하는 장면은 잔잔한 여운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이를 보며 문득 미국 프로야구의 강타자이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한 선수가 머릿속에 겹쳤다.

레지 잭슨(Reggie Jackson). 그는 1960년대 메이저리그에 데뷔해 21시즌 동안 통산 563개의 홈런과 1702개의 타점을 기록한 괴력의 슬러거였다. 게다가 1977년 뉴욕 양키스 시절 LA 다저스를 상대로 한 월드시리즈 6차전에서 무려 3연타석 홈런을 때려 언론으로부터 주목을 받았고, 또한 월드시리즈에 유독 강한 면모를 보여 ‘10월의 사나이(Mr. October)’란 별명이 붙기도 한 선수였다.

하지만 그의 이런 화려한 면모보다 더 멋지게 관중에게 기억되는 장면이 있다. 은퇴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옮긴 에인절스팀 시절, 4대 4 동점인 8회 말 무사 1루 상황에서 네 번째 타석에 선 그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플레이를 감행한다. 정확한 코스에 번트를 대고 주자를 무사히 2루에 진루시키며 이어 후속 타자의 결승타로 경기를 승리로 이끈 숨은 공

신 역할을 한 것이다. 리그지구 선두 팀과 반계임 차로 각축을 벌이는 상황에서 그 결과는 더욱 값졌다. 물론 그가 앞선 타석까지 부진하였다지만, 그의 명성에 비취본다면 충분히 안타를 때려 팀을 구원할 영웅이 될 수 있었는데도 그는 무려 12년 만에 처음으로 희생번트를 대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런 대타자의 쉽지 않은 선택이 오히려 홈런을 평평 때려내는 모습보다 더 깊이 관중에게 각인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그는 닭의 벼슬(Noblesse) 같은 위치에 있었지만, 노른자(Oblige)처럼 알을 낳는 닭의 사명에 충실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고귀한 신분에 따르는 사회에 대한 도덕적 책무는 오늘날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덕목이다. 부와 권력으로 대변되는 사회 지도층들의 연일 터지는 비리와 범죄, 그리고 도덕적 불감증으로 이어지는 현 세태는 국민을 절망케 한다. 임버릇처럼 국민을 섬긴다는 정치인들과 소비자가 왕이라는 재벌 기업은 늘 아누스적인 모습으로 제 잇속을 챙기기에 혈안이다. 예전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며 한 일간지의 1면에 실린 사진이 기억난다. 사진 왼쪽엔 태극기가 집집이 펄럭이는 서울 강북의 낡은 연립주택의 배란다가, 그리고 오른쪽엔 강남의 화려한 고층아파트 창틈으로 빠짐없이 설치된 일본 위성방송 시청 안테나가 나란히 찍혀 있었다. 어쩌면 이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지 모른다.

멀리 백년 전쟁 당시 영국에 끝까지 저항한 프랑스 칼레시(市) 여섯 지도자의 희생정신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 특권층들이 더 낮은 자세로 그들이 누리고 있는 만큼 일부를 다시 돌려줘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진정한 고귀함은 바로 4번 타자가 팀을 위해 희생번트를 대는 것과 같은 행동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5년간 일제고사는 학교를 황폐화시켰다. 그런데 또 다시....

지난 5년간 일제고사는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학교 사회를 병들게 했다. 학교와 교육청을 졸 세우는 성적경쟁체제는 더 강화되었다. 교육부는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의 요구는 아랑곳없이 학교를 또 고통스런 경쟁의 도가니에 몰아넣고 있다. 오늘 여섯 번째 일제고사를 치른다.

우리는 승리했지만 그것은 반쪽이었다.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고통을 고스란히 받으며 지난 5년을 견뎌왔다. 힘차게 일제고사를 반대했다. 정부는 일제고사의 문제를 인식하고 초등학교 일제고사를 폐지했다. 정부도 일제고사의 폐해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일제고사 반대를 외치다 37명의 교사들이 대량징계를 당했으나 한 번도 물러서지 않았다. 다시 중학교를 중심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일제고사를 앞두고 파행 사례는 끝없이 이어졌다.

일제고사를 앞두고 지난 2-3개월간 학교는 몸살을 앓았다. 학습부진학생을 강제로 토요일에 등교시키고, 방과 후에 문제풀이 학습을 강요했다. 또한, 정규 수업시간에 일제고사 대비 문제 풀이를 하는 등 교육과정 파행이 이루어졌다. 심지어 어느 장학사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기말고사 시험에 일제고사 기출문제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출제하라고 교사들을 강제했다. 독서를 강조하던 학교와 교육청이 독서 시간을 폐지하고 일제고사 기출 문제를 풀게 했다.

일제고사 파행의 주범은 교육부와 교육청이다.

정부는 시도교육청 평가와 학교성과급 평가 항목에 기초학력 미도달학생 비율과 일제고사 성적 향상도를 적용함으로써 사실상 일제고사 파행을 조장하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 관리자를 통해 일제고사 대비 성적 향상을 압박하였고, 학교 관리자들도 교사들에게 일제고사 대비 강제학습을 강요하였다. 이로 인해 일제고사는 지역과 학교의 서열을 매기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며, 학교는 자신의 금전적 보상과 알량한 학교 서열 올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일제고사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퇴행이다. 자기모순이며 기만이다. 교육청이나 학교의 등급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에게 성적 경쟁과 입시교육을 계속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그 중심에 정부가 있다.

이제 일제고사는 폐지되어야 한다.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일제고사는 이제 세계의 흐름이 아니다. 이제 관속에 넣고 교육의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 경쟁이 최고이고 성적이 지선(至善)이면 시민과 학생의 행복 지수도 높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정반대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학생 자살율, 행복하지 못한 시민, 학생이 우리의 현실이다. 경쟁 교육을 상생과 협력의 교육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도 어둡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감은 일제고사 파행을 저지른 학교장과 교육 관료에 대해 성적 비리 행위자에 준하는 중징계 처리하라.
2. 교육청은 교육과정 파행 사례가 많거나 심각한 학교, 지도·감독에 소홀한 학교, 교육과정 파행을 조장하는 학교에 대해 행·재정적인 제재를 가하라.
3.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학부모,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라.
4. 교육부는 일제고사를 시도교육청 평가, 학교 평가, 학교성과급 평가 지표에서 즉각 삭제하라.
5.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전집형태에서 표집으로 전환하고 일제고사에 관한 일체의 정보 공개를 금지하라.

2013년 6월 25일

일제고사식 학업성취도 평가의 폐지를 요구하는
부산 시민사회 단체 대표자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과 수사 축소 진상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철저하게 밝혀라.
- 경찰의 수사 축소를 지시한 관련자들을 즉시 처벌하라.
- 국회는 국가정보원 관련한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어떻게 이루어낸 민주주의인가. 수많은 희생을 딛고 이룬 민주주의 토대가 정치권에 의해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말로만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정치권이 보여준 작태는 실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가정보원이 18대 대선과정에 개입하여 특정후보를 지지하였고 이를 조사해야하는 경찰은 사실을 은폐하고 축소 수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선과정에서 국가정보원장은 특정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지시를 하였고,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축소수사를 지시하였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불구속 수사를 지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말로만 국민들을 위한다 하고는 뒤돌아서서는 온갖 치졸한 행태를 자행한 것이다. 국민들이 유일하게 행사하는 선거권은 정치권력의 노리개로 전락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불법의 토대위에서 시작했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 박근혜정부가 탄생했음을 부인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국정원 선거개입의 진상은 철저하게 규명되어 처벌받아야 한다. 또한 수사축소를 지시했던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관련자들도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정원장이 혼자 벌인 일이라 청와대는 모른다고 강변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이다. 반드시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 것이 도리요 순리다. 국민 앞에 드러내 놓고 잘못을 반성하고 국가정보원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권력자의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 참교육학부모회는 국민들과 함께 벼랑 끝에 몰린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다.

2013년 6월 28일

(사)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학부모알림란

◆ 7월 회원만남의 날 - 참학 농장에 초대합니다

- 일 시: 2013년 7월 14일 (일) 11시
- 장 소: 양산 동면 참학농장 (동래역, 남산역, 범어사역에서 12번 혹은 양산가는 버스타고 양산 동면 면사무소 앞 하차 5분거리)
- 농장에서 수확한 풍성한 아채로 점심먹기

◆ 2013 달밤트레킹

13회재를 맞는 달밤트레킹은 올해는 회원과 회원가족의 트레킹으로 잡았습니다.
회원 가족들과의 이야기를 밤새 풀어놓는 행복한 시간에 참여바랍니다.

- 일 시: 2013년 7월 20일 오후 5시 ~ 12시 (음력 6월 13일)
- 장 소: 신평~ 구포대교까지 (약 20km정도)
- 어떻게?: 지하철 신평역에 5시까지 모여 걷기 시작하여 가다가 낙조를 보고, 을숙도에서 각자 싸온 도시락으로 저녁을 먹고 공항로를 따라 구포대교까지 지하철 시간만큼 달빛을 보며 걷습니다.
- 회 비: 5,000원

◆ 식생활교육 체험학교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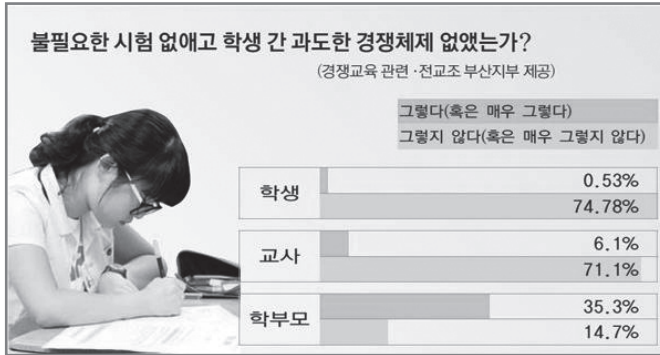
조정화, 장현숙, 임주연, 류정애, 송화선, 이남숙회원이 참여하여 '쑥개떡' 만들기를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 참여하면 더 좋습니다.

- 7월 15일 모라초등 / 7월 17일 창신초등 / 7월 18일 명호초등



이달의 지역 언론 속의 교육 기사

임혜경 부산시교육감 취임 3년 성적표는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해 학생이나 교사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경쟁교육이 심화된 것을 가장 안 좋게 평가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이하 전교조 부산지부) 연구기관인 참교육연구소가 부산의 초등학교 학부모(170명), 중고등학교 학생(674명), 초중고 교사(492명) 등 모두 1천 336명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부산교육정책 개선을 위한 임혜경 교육감 취임 3주년 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설문 결과 학생이나 교사는 임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해 대체로 불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먼저, 학생들의 임 교육감 3년 교육정책에 대한 평가는 가히 충격적이다. 학생들은 10개 항목 질문 모두 긍정보다는 부정적 답변이 우세했다. 10개 항목 가운데 7개 항목에서 부정적 답변이 모두 과반수(50%)를 넘겼다. 교사들의 평가도 학생들 못지않다. 10개 항목 중 '공문 감축'과 관련된 질문을 제외하곤 9개 항목에서 긍정보다 부정적 답변이 우세했다. 8개 항목에서 부정적 답변이 모두 50%를 넘겼다. 교사들도 학생들처럼 경쟁교육 심화 부문을 다른 어떤 항목보다도 가장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봤다.하지만, 교사들은 공문 감축에 대해서만큼은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교육감은 공문 감축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효성 있게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60.3%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부정적으로 답한 교사는 12.8%에 불과했다. 학부모들의 대답은 10개 항목 가운데 10개 모두 긍정적 답변이 부정적 답변보다 앞섰으나 이번 조사에서 초등학교 학부모만 설문조사에 포함돼, 중·고등학교 학부모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점은 크게 아쉬웠다.

부산일보 / 정달식, 윤여진 기자 / 2013-07-01 / dosol@

교육감 선거 전초전...성향따라 뭉친다

지방선거 1년 남짓 앞두고 보수·진보 단체 창립 잇따라

차기 교육감 선거가 1년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산지역 교육계와 시민사회에 새로운 교육단체가 잇달아 발족해 선거 의제를 제시하고 선거제도 재정비 필요성을 주장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을 펼치고 있다.

내년 6월 4일 열리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지역주민이 직접투표로 차기 교육감을 선출하는 상황에서 교

육 관련 단체들의 이 같은 활동이 선거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학교바로세우기 부산연합 조금세 회장(전 부산교총 회장)은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과 2014년에 폐지될 예정인 교육의원제도의 존속을 위해 교육자치법 개정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는 부산교육포럼이 발족했다. 이 단체는 김석준 부산대 교수, 박영관 민주공원 관장, 고호석 전 전교조 부산지부장 등 진보적 성향의 인사 6명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이 단체는 창립선언을 통해 “극한의 입시경쟁과 심화하는 교육 불평등,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전시성 교육행정 같은 현실을 개선하는 데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공동대표를 맡은 김석준 교수와 박영관 관장은 내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안팎으로 밝혀 놓은 상태다. 부산교육포럼은 “단순히 교육감 선거를 위해 단체를 발족한 것이 아니라 첨예한 교육 현안을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 밝히고 있지만, 선거와 관련해 이 단체의 활동이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내년 부산시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와 진보 양쪽 모두 후보 난립 방지와 후보 단일화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이 같은 단체들의 활동과 영향력이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되고 있다. 아울러 조만간 새로운 교육 관련 단체들이 등장할 가능성도 높다고 교육계는 내다보고 있다.

국제신문 / 조봉권 기자 / bgjoe@kookje.co.kr / 2013-06-19

부산 교육 1번지 고교에 무슨 일이

자율형사립고 동래여고, 3년만에 일반고 전환 시도...재정난 핑계에 학부모 반발

‘부산 교육 1번지’ 금정구와 해운대구에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교육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일반계고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남녀공학은 남고 또는 여고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 등은 여론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거세게 반발해 갈등을 빚고 있다.

동래여고는 2010년 자사고로 지정된 이후 심각한 재정난을 빚고 있어 일반고로 다시 전환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학교 측은 “지난 3년 동안 자사고를 운영하면서 재정 손실이 지속적으로 누적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특히 신입생 정원(300명)의 20%를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는 사회통합(옛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에서 지속적인 미충원이 발생하는 등 재정적 위기가 크다”고 강조했다. 일반고와 달리, 자사고는 교육과정을 자율로 편성할 수 있지만 학교운영비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학교 측은 이르면 2014학년도부터 단계적 또는 전면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학교 측은 이달 초부터 ‘자사고 반납 및 일반고 전환’을 위해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들어갔고, 지난 14일과 17일 교내 철쭉홀에서 ‘학교 현안 해결 및 학교발전을 위한 학부모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틀간 열린 학부모 총회에는 600명 이상 운집했다.

해운대구의 남녀공학인 해강고와 신도고는 남고와 여고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두 학교는 남녀공학이 인근 단성학교(남고 또는 여고)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최근 의견수렴 등 기초작업을 벌였다.

신도고는 여고로, 해강고는 남고로 전환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수렴했다. 하지만 두 학교는 동창회 등의 반발에 부딪혀 전환 논의를 일단 중지한 상태다.

국제신문 / 조봉권, 김미희 기자 / bgjoe@kookje.co.kr / 2013-06-18

교권회복 프로젝트-무너진 교단 '희망'을 세우자



교단은 지금 “교권이 바로 서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선명하고 절실하다. 우리 사회의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교사’가 부당한 간섭과 침해받지 않고 잘 가르칠 수 있는 권리’인 교권부터 제자리를 잡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과 바람이 여기에 녹아 있다. 국제신문은 지난달 8일부터 ‘교권회복프로젝트’ 시리즈를 7회에 걸쳐 연재했다. 이를 통해 제기된 과제를 간추리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교사, 학부모, 전문가 6명의 결산 좌담회를 마련했다.

◇ 참가자

▷이채주 부산교총 정책연구소 정책국장(연천중 교감) ▷정한철 전교조 부산지부 정책국장

▷황기철 부산공고 진학상담교사 ▷이경희 바른교육실천을 위한 부산학부모모임 회장

▷이규남 부산참교육학부모회 부지부장 ▷주성태 용수중 생활지도부장교사

◇좌담 일시 및 장소 = 6월 17일 부산시교육청 중회의실

◇취재협조 = 부산시교육청

▶이규남=학부모로서 이 시리즈에 대한 불만도 꽤 많았다. 교권침해와 관련된 사건을 나열식으로 제시한 느낌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떤 교육과 개선이 필요한지 알기 힘들었다. 학생들이 교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많이 한다면, 그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심층 분석하는 접근이 있어야 했다.

교사들의 자기반성부터 필요하다. 학부모로서 나는 학교운영위원과 학교폭력자치위원 등 관련 활동을 수년째 해왔다. 막상 학교 안으로 들어가 보니, 교사들이 무거운 징계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학생이 애정과 기회가 더 필요한 청소년인 경우도 꽤 있었다. 교사들이 학생에게 권위적으로 대하고 싶은 것은 아닌가. 성적만을 중심으로 학생을 대하면서 학교를 더 어렵게 만든 데는 교사 책임이 있다.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그러나 요즘은 맞벌이 직장생활을 하는 가정도 많고 아이가 학교에 주로 있다 보니 그게 말처럼 쉽지 않기도 하다. 더구나 대부분 학부모가 “내 아이는 그렇지 않다” “내 아이가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나쁜 물이 들어 그렇다”고만 생각하는 경향도 여전하다. 그러니 차라리 이렇게 접근해보자. 먼저 아이들을 좀 놀게 해주자는 거다. 아이들이 과도한 학업 부담과 스트레스를 덜고 놀면서 공감능력을 키우게 하는 방식에 교사의 사랑이 더해지면 문제는 더 쉽게 풀릴 수 있다.

국제신문 / 조봉권 기자 / bgjoe@kookje.co.kr / 2013-06-18

활동 사진



▲ 시민의제 컨퍼런스 정책학교에서



◀ 일제고사 일인시위

회원만남의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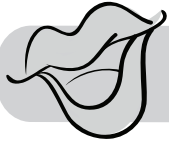
활동 사진

우다소사



▲ 부일외고 전교생에게 우다소사
오리엔테이션





6월 이리렇게 보냈어요

- 6월 3일 부산교육포럼 창립 - 부산일보 (장유성, 조명숙, 이해숙)
- 6월~6월 26일(화, 수, 목) 시민의제컨퍼런스 정책학교, YMCA
- 6월 5일 본부 후원의 밤, 전국이사회- 서울, 광선회
- 6월 12일 급식운동본부 긴급회의-시청 담당자 면담 (곽선희) / 시민의제컨퍼런스 교육팀 회의
- 6월 13일~14일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 전국 민관 협력 워크샵 - 전북장수 (김정숙)
- 6월 15일 식생활교육 부산네트워크 이사회
- 6월 16일 한새학교 우다소사 - 김해, 창원 (장유성)
- 6월 17일 식생활교육 체험학교 교육단체 간담회 / 국제신문 지면 토론회 - '교권' (이규남)
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회 / 임원회의
- 6월 20일 정책학교 교육부분 강의
- 6월 21일 임주연 탐방
- 6월 22일~23일 영호남 학부모교류 - 광주, 부산, 울산, 거제지부와 함께 함 (곽선희, 김혜례, 백미영)
- 6월 24일 부산시민의 힘 민들레 창립 - 부산일보 / 부산교육균형발전위원회 회의 (김정숙)
- 6월 25일 일제고사 반대 1인 시위 - 양정역 (곽선희, 김정숙)
식생활교육 체험학교 담당교사 및 교육단체 워크샵 - 뜰에장 (조정화, 장현숙)
- 6월 26일 해운대여성인력개발센터 학교급식조리사 과정 강의- '학교급식에서 조리사의 역할과 식생활교육' (김정숙)
학생징계조정위원회 / 국정원규탄 기자회견 - 10시 30분, 시청
어린이집 CCTV설치 반대 기자회견 - 10시, 시청
- 6월 27일 영화소모임- 공간초록 '그리고 싶은 것' (곽선희, 백미영, 김혜례, 김치름)
- 6월 28일 회원만남의 날 - 다가온 '채승영, 권용욱이 준비하는 시를 읽는 저녁'
(곽선희, 권용욱, 채승영, 김재홍, 이창호, 권구, 권고은, 남희선과 두자녀, 이인경과 두자녀, 김정숙, 신광호, 조정화, 김혜례)

6월 회비를 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석희, 강순금(2만), 강아련, 강재성, 강정아, 고내현, 고창민, 고혜경, 공외정, 곽선희, 곽은순, 곽차섭, 곽태순, 권서용, 권영순, 권인근, 김경선, 김경숙(5천), 김경희(A), 김경희(B), 김계선, 김기영, 김동철, 김동희, 김법기, 김상현(2개월), 김석준, 김성미, 김성희, 김수영, 김수진, 김영미(A,5천), 김영숙, 김영희(A), 김영희(B), 김옥랑(2만), 김옥순(2만), 김원재, 김유순, 김은정, 김익수, 김재홍, 김정숙(2만), 김정애, 김정열(5천), 김정원, 김종만, 김종찬, 김종철(2만), 김지원, 김진아, 김차름, 김춘미, 김현봉, 김현준, 김형선, 김혜례, 김호정, 남광우, 남희선, 노귀전, 노기섭, 노영민, 노혜영, 노희정, 류봉심, 류정애, 맹일영, 문명숙, 문영식, 문인숙, 문재경(5천), 문혜정, 민문식, 박경아, 박무준, 박미순, 박성미, 박유미, 박은숙, 박준건, 배문주, 배선임(3개월), 배종만, 백미영(5천), 백성희, 백점단, 부지환, 서경애, 서권석, 서석태, 서인석, 서정자(5만), 서정호(3개월), 석은경, 선석열(2만), 성인심, 손건태, 손재광, 송경희, 송명희, 송미순, 송부희, 송승희, 송언경, 송철동, 신광호(2만), 신수자, 신영희, 신지원, 심미숙, 심성보, 안종기, 양미진, 양윤자, 여진호, 염상미, 오봉숙, 왕병구(2만), 우성만, 유동철, 유명희, 유은정, 윤내경(2만), 윤승태, 윤신옥, 윤연섭, 윤영근, 윤영이, 이경애, 이규남(2만), 이금숙(5천), 이남숙, 이내훈, 이병숙, 이선애, 이성하, 이수진, 이승중, 이영주(2만), 이은정, 이인경, 이일권, 이재홍, 이재희(5천), 이정인, 이정형, 이종명, 이진희, 이행봉, 이혜숙, 이혜영, 이희주, 임석규, 임선희, 임영선, 임주연, 장동제, 장말선, 장미자(5천), 장선희(2만), 장순옥, 장유성, 장은숙, 장정인, 장지숙, 장현숙, 전순실, 정동주, 정동희, 정미경, 정봉애(2만), 정수련, 정윤숙, 정이덕, 정재천, 정찬호, 제진희, 조금제, 조명숙(3만), 조병준, 조석현, 조원국, 조정화(2만), 주우명, 주정현, 지영경(5천), 채승영(2만), 최경희(A), 최경희(B), 최미경, 최승희, 최영순, 최은화, 최점순, 최정훈, 최종수, 최지선(2만), 최한, 편국자, 함정화, 허미경(2개월), 허운영, 홍동희, 홍정희, 황마리아, 황선애, 황송미, 황보덕, 황은옥(2만)

■ 6월 결산 보고

수 입	지 출 내 역	지 출 금 액	이 월 금
이월금	중앙 분담금	578,300	6,445,515
6,263,705	전국이사회여비	150,500	
회비수입	사무실 운영비	309,420	
2,335,000			
후원금			
50,000	소식지 발송비	99,970	
이자수입	소식지 인쇄비	240,000	
0	상근자 급여	500,000	
기타수입	사무실 임대료	275,000	
0			
수입 합계	지출 합계	2,153,190	
8,598,705			

- CMS 회원 신청하세요! 사무실에 나오셔서 간단한 양식을 채워주시거나 전화(☎051-556-1799)로 하시면 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계좌번호 : 101-2001-6612-01 부산은행 참교육학부모회부산지부)

바로서는 학부모
우뚝서는 아이들

참 교 육 을 위 한 전 국 학 부 모 회

주요사업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대응 활동

교육정책에 학부모 의견수렴 및 정책 반영

- ◆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서, 성명서 발표, 서명·청원운동
- ◆ 교육현안에 대한 토론회 개최, 사회여론 조성
- ◆ 학교내 돈봉투 없애기 운동
- ◆ 국회·시·도 교육위원회 참관
- ◆ 학교의 부당찬조금 및 잡부금 없애기 운동

학교운영위원회 활동

학부모 학교참여 운동

- ◆ 학교운영위원회 교육강좌
- ◆ 학교운영위원회 문의상담
- ◆ 학교운영위원회 실태조사,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

교육강좌·소모임 활동

전국 각지부별 월례 교육강좌를 꾸준히 열고 있습니다.

- ◆ 교육현실의 이해를 위한 학부모 교육강좌
- ◆ 소모임활동 : 교육문제연구, 역사탐방, 동화모임, 미술모임, 글쓰기, 풍물 등
- ◆ 부모역할 훈련
- ◆ 예비학부모 교실(초·중등)
- ◆ 지부별 월례교육 강좌

출판·홍보활동

학부모의 활동과 목소리 담은 ‘학부모신문’발간

- ◆ 매월 학부모 신문 및 지부 소식지 발간
- ◆ 신입회원, 임원교육자료집 발간

회원이 되려면...

우리 아이들이 올곧고 참되게 자라기를 바라는 학부모는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비는 월 1만원이상 내시면 됩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어느 단체의 재정지원 받음 없이 회원들이 내는 회비와 수익사업만으로 사무실을 운영하며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당당하게 내고 참교육 여건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합시다

주소 : 부산진구 중앙대로 918-1
(양정1동 352-23층)

문의 : 051)556-1799

<http://hakbumo.or.kr>